

Saudi CP, 석유화학 투자 가속화

JCP 및 NCP 컴플렉스 건설 추진 ... 공사는 Parsons가 모두 수주

Saudi CP(ChevronPhillips)의 석유화학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CPChem(ChevronPhillips Chemical)과 사우디 민영 화학기업 컨소시엄 SIIG(Saudi Industrial Investment Group)의 합작기업인 Saudi CP는 현재 Aromax 공법을 이용한 벤젠(Benzene) 55만톤 플랜트와 Cyclohexane 28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2010년 2/4분기 가동을 목표로 NCP(National ChevronPhillips) 컴플렉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0억이 투자되는 NCP 컴플렉스는 Al Jubail에 들어서는 Saudi CP의 3번째 컴플렉스로 120만톤의 가스 크래커를 기반으로 Hexane-1, SM(Styrene Monomer), PS(Polystyrene),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를 생산하며 미국 Parsons E&C가 2006년말 공사 및 조달 수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Parsons는 2008년 1/4분기 완공되는 JCP(Jubail ChevronPhillips) 컴플렉스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컴플렉스 투자액은 12억달러, 생산능력은 에틸렌(Ethylene) 30만톤, 프로필렌(Propylene) 20만톤, 벤젠 85만톤, SM 71만5000톤에 이른다.

JCP 컴플렉스는 Stone & Webster의 에틸렌 공법을 채용했으며 크래커 원료로는 N-Pentanes을 사용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10/24>